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5월 26일 (제1255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꿈이 있는 자

96세 되는 권사님을 만났다. 그분의 딸이 우리 어머니를 한번 만나 달라고 강청했고, 더 늦추다가는 후회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간을 냈다.

그 권사님은 이복이 고향이며, 거기서 결혼하여 두 딸을 두셨다. 그런데 당시 북한 쪽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아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일단 둘째 딸만 데리고 남하하셨다. 며칠 내로 다시 북으로 올라가 큰딸도 데리고 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사이에 그만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당연히 그 후로 딸을 만날 수 없었다. 권사님은 그제 평생 한이 되었고, 딸 한 번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연세가 있다 보니 권사님이 쇠약해지고 심적으로도 나약해질 때면 권사님과 함께 있는 딸은, “엄마, 3년만 기다려. 언니 볼 수 있어.”라고 희망 주사를 놓곤 한다. 그러면 권사님은 정말 기력을 회복하고, 정신도 또렷해지신다. 심지어 고관절이 부러진 일도 있었는데, 그 관절이 다 붙었다. 대개 고령자가 고관절이 부러지면 두어 달 안에 돌아가는 게 통례라고들 하는데, 권사님은 관절이 다 붙어 지금은 거동이 가능하시다. 그 이유는 ‘3년 후면 딸을 본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꿈이 있는 자는 절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은 자는 절대 낙망하지 않는다. 딸을 고치고자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고, 역을함을 풀고자 했던 과부가 그랬다. 라헬과 결혼을 꿈꾼 야곱이 지치지 않았으며,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꿈꾼 엘리사가 좌절하지 않았다.

내 나이 70 중반이지만, 나에겐 아직 못이룬 꿈이 있기에 나는 아직 주저앉지 않는다. 그 꿈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갈렙이 85세에 40대 기력을 지녔던 것도 ‘헤브론 땅’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는가. 나이가 많아서 삶의 의욕이 없다고? 나이 때문이 아니다. 꿈이 없기 때문이다. 딸을 보겠다는 꿈이 96세 권사님을 지탱하는데 뭘 소리를 하는가.

꿈을 가져라. 그것은 기쁨이 떨어진 자동차에 주유하는 것과 같다. 꿈이 너를 달리게 할 것이고, 네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줄 것이다.

삶의 황금률,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

아무것도 모를 거 같은 어린아이도 저를 이빠하는지 아닌지 잘 안다.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마찬가지다. 성경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취기 때문이다. “물에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잠27:19). 그래서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목사님은 대접의 왕이다.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를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하시는 걸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다. 오죽하면 세계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러 온 해외 목회자들 중에 공항부터 이루어지는 손님 대접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분이긴 하지만, 회장님처럼 만날 때마다 그토록 웅숭하게 대접하는 건 처음 본다’며, ‘목사님이 얼마나 회장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회장은 “그러게 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처럼 잘해주시는지 제가 아주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라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조회장은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위해 리조트를 통째로 내놓고, 자신이 사무실과 숙소로 쓰던 영접실이 딸린 방을 목사님을 위해 준비했을 뿐 아니라 수영장을 청소하고 3월에 걸쳐 물을 새로 채워 넣었다. 목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고,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 들어 역사해주시는 거다.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을 오해한다. ‘아무리 봐도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러실까?’ 한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다. ‘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셨구나!’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어떤 선입견보다 기도한 것을 믿고 가시는 분이다. 하다못



조봉환 세부한인회장이 제공한 가비(Gabi) 리조트와 조회장 가족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한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다. 그들 인생에 그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그럴 법도 했으리라 짐작은 간다. 아무튼 그럴 정도로 목사님은 손님 대접에 있어서 시작부터 마침 때까지 최선을 다하신다. 매사 그런 분이긴 하지만, 이 역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요13:20)는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가훈 자체가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던가.

이번 세부집회의 스타트를 끊었다고 할 수 있는 조봉환 세부한인회장을 현지에서 만나 ‘목사님이 대접 잘하기로 유명한

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한 것 이상 몇 배로 대접을 받은 셈이다. 그리고 사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교회부지로 쓰라며 땅도 내놓았다.

그런데 지난 주일, 인천교회를 찾아온 조회장은 기적이 일어났으며 간증했다. 목사님께서 자기 집까지 찾아와 축복기도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집회 후 마닐라(Manila)를 다녀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이 정부 정책상 묶여있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라 더욱 놀라웠다고 한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해 차를 운전해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더 편안하고 좋은 차나 더 능숙한 기사를 대준다 해도 처음 기도한 것을 믿고 절대 바꾸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진심의 자세다.

대접받고 싶은가?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상대를 대접하면 된다. 존경받고 싶은가? 역시 먼저 상대를 존중해주면 된다. 이것이 우리 삶의 황금률이다. 우리의 마음은 물에 비치는 우리 얼굴처럼, 서로의 마음에 비친다. 속이려야 속일 수 없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약6:7).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전주 실내체육관집회

일시: 2024년 6월 6일(목)~7일(금), 저녁 8시
장소: 전주실내체육관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5:13~16)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 5:13~1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될 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다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공식을 알면 문제는 풀리는 법, 그 답은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십니다. 착하고 바른 행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이지요. 착한 행실이 됩니까? 바로 처세술입니다. 어떻게 처신하느냐, 언행심사가 어떠냐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행할 ‘착한 행실’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믿는 자는 온유해야 합니다.

‘오 모래여, 오 모래여, 내 사랑 모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희생의 사랑에 할 말을 잊었다오/ 이것이 파도의 고백이라오/ 당신은 모래, 나는 파도/ 당신은 배요, 나는 노라오/ 우리는 예수가 맺어주신 영원한 천생연분이라오/ 오 사랑, 오 사랑, 우리는 사랑뿐이라오/ 지치고 상한 맘 안식이 있다면 오직 당신의 품이라오/ 영원히 당신만을, 당신만을, 당신만을 사랑 하리라~’

제가 작시한 ‘모래와 파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작시한 계기는 이렇습니다. 목회 초기,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마음도 식힐 겸 혼자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상념에 잠겨있는데, 거센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위에 부딪히니 파도가 자지러지게 소리를 내고 아파하며 물러가고, 받아친 바위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반면에 눈을 돌려 모래사장을 보니 같은 세찬 파도가 물러와도 모래는 그것을 다 안아 잠재우고 물방울을 만들며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아~ 노를 되받아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모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치니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해지면, 내가 모래처럼 부서지면 세찬 파도도 품을 수 있고, 거센 분노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바위라 맞받아치니 가정, 사무실,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니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불을 밝혀 말 아래 두는 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란 따스할 온(溫), 부드러운 유(柔)입니다. 양지에 사람이 물리듯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내 주위에 사람이 몰립니다. 회사에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동료들이 달리 볼 것이고, 학교에서 내가

모래가 되어 바위 같은 자를 품어주면 ‘역시 예수 믿는 자는 달라.’ 할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리하면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 시댁 식구가 ‘우리 마누라가 믿는 예수,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를 믿어볼까?’ 합니다(벧전 3:1~4).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9)고 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조차 맞받아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히12:2). 그래서 결국 승리하셨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고, 노를 발하니 쓸모없는 소금처럼 버려져 슬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찌라 칼이 다시 꽃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겔 21:4~5) 하실 정도로 혈기 있고, 분노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가 됩시다. 혈기나 분노는 제2의 가인을 만들 뿐입니다. 모세처럼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어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둘째는 상대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지요 선지자니라”(마7:12)는 말씀은 인생의 황금률(黃金律)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입니다. 이 말씀은 남에게 악을 주면 내가 악을 받게 되고, 남에게 사랑을 주면 나에게도 사랑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왕 대접하면 아내인 내가 왕비 대접을 받지만, 남편을 하인 다루듯 하면 결국 나도 하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푸줏간을 하는 김선택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는 푸줏간에 들어서자마자 “어이, 개똥아. 고기 두 근만 줘.”라고 했습니다. 개똥이라 불린 김선택은 고기를 잘라 종이로 말아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 또 고기를 사러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김 서방, 고기 두 근 주시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선택은 “예~”하고는 고기를 잘라 종이로 말아주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흘끗 보니 같은 두 근인데 자기 것보다 양도 많고 육질도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아, 개똥아. 똑같은 두 근인데 왜 이리 달라?” 하고 소리를 지르자 김선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를 수밖에요. 그건 개똥이가 준

것이고, 이건 김 서방이 드린 거니까요.”

그럼요, 대접받으려면 상대를 대접해야 합니다. 정죄 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손 대접도 잘해야 합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색한 자식은 부모도 싫어한다는데, 남에게 인색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번 세부 집회에서 우리 일행은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원천이 무엇인가 하면 집회를 주최한 세부한인회장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가 최고로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더니 늙어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창18)?

셋째, 작은 일에도 충성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이 말씀은 제 인생철학이자 목회철학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큰일도 망설이지 않고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일을 내 일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시간을 도적질하지 말고 매사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그 일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일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엡6:5~7).

네 신앙은 짝퉁이나 명품이나?

여러분, 나의 온유함, 나의 인격적 대접, 나의 충성으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힘들다고요? 성경에는 진정한 착한 행실은 성령의 열매임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갈5:22~23).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5:9). 할렐루야!

:: 객원컬럼 ::

하나님의 일은 나를 살리는 힘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데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육체는 약해지고 퇴화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는 지체는 성장이 없고 나중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힘이 되고, 신앙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오지를 찾아가는 백인이 밀림을 지나 강을 건너는데 원주민 가이드가 큰 돌을 하나 어깨에 짊어지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투덜거리며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강을 건너고 나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돌이 세찬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무사히 건너게 하였던 것입니다. 대양을 횡단하는 선박에는 배 밑바닥에 선박 평형수 탱크가 있습니다. 일정한 물을 채워서 배가 흔들리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이처럼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품잡으라고 장식용 액세서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직식 때 임명장을 주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말씀에 “아멘!”하며 큰소리로 화답했던 일꾼들이 직분을 헌신 짝처럼 버리고서 복 받기를 원하고, 상급의 면류관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시시때때로 공급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일한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신앙의 명문 가정들은 이 땅에서도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자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6:2). 뒤로 쫓무니 빠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복을 받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 왕권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화평 목사**

젊은이여 일어나라

먼동이 틈다
젊은이여! 일어나 삼 잡고 뽕이 잡고
이 나라 이 강산 일구어보게나
기개와 패기가 사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젊은이여 일어나 특치고 앞서가게나
이 산에 봉황불, 저 산에 봉황불
마주 보며 태을 때
삼천리 금수강산 뽕뽕마다 꽃피우니
어둠던 강산에 여명이 밝아오네

일어나 외치게!
새날이 왔다고
일어나 외치게!
미래가 있다고
일어나 틀게나!
세계가 두르장막
일어나 보게나!
하나님이 돌장나

朋友

:: 생명의 말씀 ::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집은 아침 식사 때 총회장 목사님의 20분 설교를 듣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등교한다. 어느 날, 대화 중에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했더니, 아이가 ‘엄마, ‘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신다!’’, 목사님이 설교 때 믿음으로 확신 있게 말하러셨어요!” 한다. 아이들이 어른 예배 설교를 알아들을까 하는 우려와는 달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한 것이다. 어느 권사님이 꿈에 내게 오셔서 자녀의 소속부서를 상의해오셨다. 권사님은 공부보다 자녀의 영혼과 신앙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였다. 자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계속 가정예배 감동을 주신다. 감사하게도 그 권사님 또한 기도 가운데 동일한 감동을 받으셔서 자녀와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고,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며 예배를 사모하더라고 기뻐하셨다. 아이가 어른들 눈에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다소 있다지만, 크게 걱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의 신앙관 때문이다. 부서예배와 주일예배만큼은 철저히 드리려 힘쓰고, 아직 믿지 않는 아빠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교회 가야 한다고 답

대히 말한다는 것이다. 학원 수강생이 모두 함께 즐기는 할로윈 파티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태도로 끊어내서 학원 선생님도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으니 어련히 그런 줄 안다는 것이다. 제사 음식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식만을 택한 다니엘과 같았다. 알고 보니 권사님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갓 태어난 그 자녀를 성전에 데리고 다니며 눈물의 철야기도를 하셨고 지금까지 기도생활을 이어온 것이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고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신28:1).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 그 가정에 때가 차매 마침내 교회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것발이 휘날릴 것을 기대한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1+1 은총

내가 자주 들르는 편의점에서 항상 구입하는 1+1 제품이 있다. 하나 값으로 두 배로 즐길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한 일이다. 하나를 더 공짜로 얻는 기분이기 때문이라. 1+1 제품은 두 제품을 하나로 단단히 결속해 놓았기에 뜯을 수도 없이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 소비자는 값없이 하나를 더 얻었지만, 생산자는 분명 그 해당 값을 지불하여 만든 거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하나를 더 공짜로 누리라고 선물한 것과 같다. 그런데 소비자가 그 공짜에 대한 값을 지불하려 할 때, 생산자의 호의가 얼마나 무의미해지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예수 믿는 첫 순간부터 우리가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후에 다 값을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취급해주시는 시작에서부터, 거기에 더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일방적인 호의요 은혜다. 죄인에 대한 완벽한 변호로 무죄판결 받게 한 그 변호사가, 석방된 죄인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격이다. 바로 1+1의 은총이다.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불변의 결속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민감해지는 거다. 일단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내 노력으로 그 값을 완불하려는 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선행을 낳게 하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바리새인들은 끝없는 율법준수와 선행의 요구를 했지만, 자신들조차 그 양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부담감만 부과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행의 양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선행의 양이라면,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한 것이 없다. 바로, 은혜만 바라보는 상한 심령이다. 믿음을 가지는 것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에, 은혜 없이는 도저히 설명이 안된다. 보석 반지를 보라! 반지가 그 보석을 견고하게 꼭 쥐고 있듯이,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단단히 붙잡고 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모순이 없다. 성경을 오해하는 인간 사고의 병일 뿐이다.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누려야 할 1+1으로 결속된 은총인 것이다. **송직화 목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 참된 깨달음 ::

믿음의 눈으로 보는 가정의 달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행10:2).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 어려운 조건 속에 있었지만,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효도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요? 온 가족이 주님만 경외하는지요? 우리 가정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쓰임 받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고나 사건에서 골든타임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통 화재

5분, 외상 1시간, 심장마비 4분, 뇌졸중 3시간, 곧 생사가 갈리는 마지막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골든타임, 즉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신앙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그리고 나 또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은혜받을 기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다. 일본 속담에 ‘부모와 돈은 없어져야 그 감사를 안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눈, 보이는 것을 보는 눈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에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주인이 ‘자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회도, 사회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로 만드셨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며 주인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시128:1).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감옥에 갇힌 가족을 위한 기도

성도 한 분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 그의 어머니와 함께 울었다.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5년을 받았지만, 다시 술 먹으며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무죄나 다시 집행유예가 나오게 끝까지 기도했건만 재판장의 용서도 거기까지였던 것이다.

낙심한 그의 어머니에게 조언을 드렸다. “재판 전에는 무죄나 다시 집행유예에 판결을 위해 기도했지만, 판결 후에는 무조건 감사해야 출소 후 더 멋진 인생이 기다립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것인데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아 형량이 작게 나왔으니 이 또한 감사할 일 아닙니까? 감옥 갔다 와서 인생에 붉은 줄 생기면 큰일인데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와 상관없는 영업직이나 사업할 일과 주님이 주실 축복은 너무나 많고, 결혼도 붉은 줄도 뛰어넘는 사랑하는 배필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옥에 갇힌 가족 때문에 슬퍼하며 출소 후의 삶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옥에서 귀인을 만나고, 깨닫고 나오면 더 큰 축복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

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한다. 육신의 감옥에서 요셉은 귀인을 만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창 39:20~41:44).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나올 수 있었다(행 16:19~26). 감옥 밖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낮고,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며 계시록을 쓰는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현실의 상황을 보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이유를 찾아 절대 감사를 해야 나도 살고 옥에 있는 가족도 살게 된다.

교도소만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도 감옥과 같다. 감옥 같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사명은 병든 자들을 위해, 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의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이다. 시간을 내서 성도들의 재판장, 교도소 면회, 병원 심방을 더 부지런히 다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다. 내가 같이 가지 못하면 영치금이라도, 믿음의 편지라도 보내 심방하고, 또 다른 선교지인 감옥에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여 그들이 출소 후 교회에 나와 다른

부흥을 만들도록 기도해야 한다.

재판을 지켜보며 우리도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판단 받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도하며 뒤돌아보게 됐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가야 할 죄인이지만 육체가 있을 때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기에 우리에게 집행이 유예되고 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자비와 은혜가 아닌 행위에 의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점검해야겠는가?

구원의 조건은 없다. 온전한 예수님의 은혜요. 믿음이다(롬1:17).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은 영생과 영벌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고,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같은 소자들을 돌보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최연식 목사

권면의 조건

나에게 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유명한 사람의 명언, 각종 정보, 권유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온다. 대부분 좋은 말이고 유익한 정보지만,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정독하기도 하고 대충 읽기도 하며, 어떤 메시지는 아예 읽지 않고 바로 지우기도 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보내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 나에게 투자를 조언한다면, ‘본인 재산이 나 잘 관리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그 조언을 무시할 것이다. 반면에, 투자에 성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의 조언이라면 그 글을 정독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한 마음에 선물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이시대 목사님이 설교 중에, “권면은 상대방이 자격을 부여한 사람의 말일 때 효과가 있다. 부모라도 자녀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을 때 말에 권위가 생기고, 자녀가 조언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조언과 권면에도 조건이 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 조언할 만큼 전문 지식이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요즘 나는 타인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충고나 조언을 하기 전에 내가 조언할 만한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신발장부터 방까지 긴 줄이 생긴다. 신발은 뒤집혀있고, 책가방, 겹옷, 양말 등을 벗으면서 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마디 하려다, 퇴근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양말을 벗어던졌던 내 모습이 생각나서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했던 모습이 떠오르며 매우 부끄러웠다. 자녀들에게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조언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정진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눅6:42).

송명국 집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는
만사(萬事)를 변화시키고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봉우